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문화신문 4면

구본승 강북구의원 [신상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중증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메르스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날자 서울신문의 메르스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국민의 94.7%, 의료전문가 80%가 '정부의 메르스 감염병원 공개 시점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결과와 의미는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북구주민들 또한 메르스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하며 특히, '강북구 지역의 메르스 환자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강북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에 대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강북구지역의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가 몇 명인지? 어떤상황인지? 극소수 몇 명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청, 강동구청이 구민들께 보낸 메르스 관련 문자와 도봉구청, 노원구청이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하는 메르스 환자 발생현황을 보건소장에게 보내드렸

으며 우리구도 메르스 환자현황을 공개할 것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6월 12일에 진행된 강북구의회 메르스 대응 보고회와 보건소 현장활동에서도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현황'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재차 보건소장께 제기했음에도 '논의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회 현장활동으로 제기한 것이 논의는 되었는지? 도봉구, 노원구청처럼 환자발생 현황을 공개하면 혼란이 커진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러 제기가 있음에도 왜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이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장이신 박경수 강북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충발언>

@ 보건소장 답변: 확진자는 없는데 격리자를 공개하면 자칫 주민들이혼란, 불안감 조성 우려, 신중하게.. 예로 s병원에 왔다갔다해서 혼란. 말씀을 고려해 검토하겠다. / 발생현황을 문의하는 전화는 없다.

@ 구본승 보충발언:

-보건소장의 답변(공개하면 혼란우려, 불안감 조성)의 논리는 메르스 초기 정부



구본승 의원

확인된 국민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

-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노원구, 도봉구청처럼 긴급한 상황때 발생현황을 공개한 자치구들에서 정말로 혼란, 불안감 조성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확인한 후 감염병등의 긴급상황시 구민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해야함.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울뿐이다. % 보건소장 답변 중 발생현황을 문의하는 전화가 없다고 했는데 6/9, 6/12 구의회 보고회, 현장활동을 알리는 저의 의정활동 블로그에 하루에 천여명이 방문하고 있음.